



▲ 천안공장 전경

부방테크론

“창사31년 경영혁신 통해 제2도약” ‘열정의 마음, 도전의 정신, 변화의 자세, 실행이 빠른

충남 천안의 부방테크론 밥솥 공장 인정시험실에는 50여대의 밥솥이 증기를 내뿜으며 쉼 새 없이 밥을 짓고 있었다. 시험실 한켠에선 내솥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내솥 착탈 시험이 한창이었다.

“내솥에 최대 인분의 밥을 채우고 내솥 높이만큼 들었 다 본체에 떨어뜨리는 시험을 분당 10회 속도로 5000번까지 반복합 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한 제조 혁신과정 중 일부분이지 요” 천안 공장 생산팀 이규남 팀 장의 설명이다.

올해로 창립31주년을 맞이한 전기밥솥업계의 만형인 (주)부방테크론의 천안공장에는 ‘열정의 마음, 도전의 정 신, 변화의 자세, 실행이 빠른 회사라는 슬로건이 곳곳에 걸려져 있다. 회사가 작년부터 내세우고 있는 기업의 핵 심 가치를 슬로건으로 담은 것이다. 이러한 회사의 경영

방침을 반영하듯 부방테크론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혁신 을 통한 도전 을 강조했다.

혁신팀 이종선 과장은 “우리회사는 업계 만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 는 명품 생활가전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로 경영혁신 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도 경영혁 신 프로젝트에 전 직원이 적극 동 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부가 즐거운 홈
LIHOM

공장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 생산팀의 ‘목표달성 결의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인관리항목, 주간공정불량, 생산계획 준수율, 사무환 경 개선 등 다양한 현황 이외에도 팀과 개인간 핵심과제 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지난 1979년 LG, 삼성 등 대기업의 주문자상표부착



리홈 Home

나를 위한 제, 나만의 Home.

| 업 | 체 | 탐 | 방 |

B 부방테크론



(OEM) 생산업체로 출발해 현재 독자브랜드로 세계 25개국 시장에 진출한 부방테크론은 작년 프리미엄 브랜드 '리홈'을 런칭하며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진행 중이다.

'턴어라운드(turnaround)'로 이름 붙여진 경영혁신 프로젝트는 추진 방향에 따라 기술-제조-마케팅 3대 부문에서 최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고경영자에서 말단 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부방테크론의 경영혁신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CEO는 "생산성이 작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향상되고 작년 출시한 부방테크론의 전략상품인 '리홈 블랙&실버 컬렉션'의 시장 내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경영혁신의 성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경영혁신의 대표적 사례는 디자인 혁신

부방테크론은 '안전하고 맛있는 밥술 만들기'에 이어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핵심내용은 '블랙'이었다. 부방테크론은 밥술 디자인에서 금기시됐던 블랙색상을 과감하게 도입해, '리홈 블랙&실버 컬렉션 압력밥술'을 출시했다. 이 제품 출시로 관련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젊은 주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체공학적 기법을 적용,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원터치 가바(GABA)'도 디자인도 업계에 신선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원터치 가바(GABA) 전용버튼'만 누르면 학습능력 촉진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바(GABA) 현미밥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사부터 보온까지의 진행과정이 음성 안내 및 전면부의 대형LCD화면을 통해 되고취사완료까지의잔여 시간도표시되주부들의시간활용을높인점도좋은평가를 받고있다.

기술 혁신도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기존 12중 안전장치에 탐센서(Top sensor)와 자동뚜껑 온도센서 기능을 추가해 국내 최다 14중 안전장치를 제품에 장착했으며



▲ 천안공장의 제품공정 모습

부방테크론의 특허 기술인 헤드락 잠금 장치도 적용했다. 주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술 혁신 결과이다.

이와 함께 부방테크론은 높은 제품력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전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 현지 중산층을 겨냥한 다양한 타겟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케팅부문 이동용 이사는 "30년이란 기업연륜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리홈'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생활가전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IH 압력밥술